

광주시, 중앙투자심사 문턱서 제동 걸린 사업 ‘수두룩’

최근 2년새 23건 중 9건 반려
2건 재검토 조건부 12건 달해
“전문·완결성·재원 갖춰야”

광주시가 추진한 상당수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2년간 진행한 중앙투자심사는 총 23건으로, 이 가운데 ‘반려’와 ‘재검토’가 각각 9건과 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적정’은 한 건도 없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조건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반려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진행이 어려울 때, 재검토는 사업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한 종합적 재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재검토는 문제점을 보완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반려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 처분을 받기 십상이다.

실제 아시아커뮤니티 아트타운(총사업비 450억원)사업은 직전 심사 당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충분한 보완 없이 재상정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았다. 국비, 시비 각각 70억원 등 163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는 아예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됐다.

636억원 규모의 광주생태마을을 조성,

401억원이 예상되는 빛고를 수상공원장, 721억원이 필요한 상무소각장 공장동 문화재생산업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재검토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줄이 반려됐다.

국비 267억원 등 총 416억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뿔’ 구축사업은 지난해 재검토에서 반려로 버랑 끝에 몰렸다가 장비·실험실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계획이 마련되고, 국내·외 관련 법령·규제 검토 작업을 거쳐 조건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총사업비 396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308억원)도 재검토, 반려를 거쳐 조건부 통과됐다.

8381억원을 필요로 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2,600억원대 영산강 대상 근린공원 조성, 송정 근린공원(923억원), 5·18 기록물 보존 시설 확충(452억원) 등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까다로운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강화 △선행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과 절차의 완결성 △재원 조달과 재정관리의 확실성 △심사 대응과 실무 협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은 “정교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선행 절차 이행,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심사 통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체 투자 심사에서는 2년간 의뢰된 55건 중 적정은 2건에 불과했고, 조건부가 44건에 달했다. 재검토와 부적정도 각각 7건과 2건을 기록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 하남도서관 개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광산구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장 후보들, 출판기념회 봇물…선거시즌 ‘개막’

조직·공약 정비도 착수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주요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출마 선언·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강 시장은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이라는 저서를 통해 민주도시에서 부강한 도시로 향하는 광주의 미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

부 조직을 재편해 대의협력·시민참여정책·정무특보 등 핵심 보좌진이 사퇴 후 외곽조직과 캠프 구성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은 내년 1월 18일 조선훈 해오름관에서 개최한다. 민 의원은 저서 ‘길은 있다’를 통해 광주 청년창업자들과의 인터뷰를 수록, 젊은이들이 떠나는 광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청년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

강 시장과 민 의원은 당초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으나, 민 의원이 “강 시장과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면

서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오는 21일 ‘문인, 광주의 삶을 바꾸다’라는 저서를 내고 광주대 호심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주치의’ 시범사업 현판식을 마지막 구성 현안으로 마무리한 뒤 이달 말 또는 1월 초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월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출판콘서트를 열어 일찌감치 출판 일정을 마쳤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달 중·하순 중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내년 초 출마 선언 후 설 연휴 이후인 2월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KTX 호남선 증편 등 각종 지역 현안 관련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이 연말·연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연초에는 새로운 후보군 등장 여부가 가시화되면서 선거 국면의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의회, 전국 첫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지원

김태균 의장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



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 전환이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정기 개최, 지역 방문객 증가 등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

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기에 지역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진호전 도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종합지원 근거 마련”

성장동력 육성 조례안 제정

전남지역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진호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남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5년마다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기술·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또 육성지구 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등 종합지원 체계를 규정해 판로 확대와 시장 형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그린바이오의 전남 농업

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전남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생명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사업으로 구체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다스코㈜
DASCO CO., LTD.

https://dasco.kr

100년 기업을 향한 창조와 혁신

Touch 28.50! 2028년 5,000억 매출

가드레일 · 교량난간 국내 M/S 1위 · 건축자재 기업에서
도로교통소음 및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건축자재 사업

-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제작 | 이지 강판탈형데크 | 이지 스틸데크
- 이지 한판탈형데크 | 이지 단열제데크 | 장스판데크
- 단열재 생산 및 제작 | 이지 보드 | 경질우레탄폼 12종
-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
기포 콘크리트 + 소음저감재 + 마감물탈 습식, 건식 공법 가능

• 에너지 솔루션 사업

- 옥상 및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 옥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
-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개발
-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 금융솔루션 제공 엔지니어링 자재조달
- 구조물생산(Pos-MAC) | 운영 및 유지관리 | 태양광방음터널 | ESS

• 인프라 사업

- 방음시설 (일반 방음터널, 일체형 방음터널, 방음벽)
- 방재시설 (배연창, 내화보드, 소방시설 등)
-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교량방호책 등)
- 건설사업 (종합 토목건축, 전문 금속창고 등)

• 사출 사업

- 사출품 생산 및 제작 | 파렛트 | P-Box | 식용 음료 용기 등
- 수상태양광 부력체

당진 데크플레이트 | 합판데크
1공장 스틸데크 | 단열제데크

당진 단열재 | 층간소음저감재
2공장 (경질우레탄 12종)(EG보드)

군산 사출제품 (파렛트, P-Box, 이중캡 등)
1,2공장 수상태양광 부력체

화순 가드레일, 교량난간
1,2공장 방음시설, 태양광구조물

다스코㈜
Development Adress Solution Co., Ltd.

스틸코㈜ (철근유통)
S.T.E.E.L. Co., Ltd.

가스코㈜ (가드레일, 교량난간)
Guard Rail And Steel Co., Ltd.

학교법인홍인학원 (영산중·고등학교)

홍인 (부동산 임대업)

기사 제보 받습니다 → jndnnews@naver.com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